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1.7(금) ~ 2025.11.13(목)

제공일시 2025 11 21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

문의 02 398 6432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1.7(금) ~ 2025.11.13(목)

제공일시 2025 11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글로벌 정책

1. 산업계 숨통 트이나...中, 갈륨·게르마늄 등 수출 통제 중단

-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세 유예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중국도 갈륨·게르마늄·안티몬 등 이종용도(군·민수 겸용) 광물의 미국향 수출 승인 금지 조치를 27일부터 내년 11월 27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음

-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향 이종용도 흑연에 대한 강화된 최종사용자·최종용도 심사와 특정 희토류 원소 및 리튬 배터리 소재에 대한 확대된 수출 제한 조치 역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음

- 주요 광물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산업계에서도 공급망 불확실성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
[\(지디넷코리아 2025.11.10\)](#)

2. 싱가포르, 세계 첫 '친환경 유류세' 도입...항공료 최대 32달러 오른다

- 싱가포르 정부가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 항공연료(SAF) 부과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싱가포르 출발 항공편의 항공료가 최대 31.95달러(약 4만3000원) 인상될 예정임

- 정부는 SAF 부과금이 싱가포르가 글로벌 항공 허브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, 항공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전환이라고 설명했음

- 싱가포르가 세계 첫 SAF 부과금 도입국이 되면서 국제 항공산업의 탄소 감축 비용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

[\(임팩트온 2025.11.11\)](#)

3. 美, 은·구리 '핵심광물' 지정...자원 안보 강화 나서

- 미국 지질조사국(USGS)이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 구리와 은을 포함한 광물들을 새롭게 추가해 핵심 광물 목록을 기존 50개에서 60개로 확대했다고 밝혔음

- 이번 개정에서는 구리·은 외에도 우라늄, 야금, 석탄, 칼륨, 실리콘, 납 등이 포함돼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광물군으로 재정의됐음

- USGS는 이번 목록이 84개 광물 상품과 402개 산업, 1200개 이상의 시나리오 분석을 기반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하며 정책 입안자에게 보다 현실적인 자원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밝혔음

[\(더구루 2025.11.7\)](#)

국내 정책

1. 정부, 내달 제12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착수...SMR 건설·해상풍력 비중 높인다

- 정부는 2026~2040년을 대상으로 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내달 시작하며, 11일 발표된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(NDC)를 반영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임
- 11차 전기본에 포함됐던 소형모듈원전(SMR) 건설 계획은 유지하되, 대형원전 신·증설 여부는 AI 확산과 산업·생활 전력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임
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며 제12차 전기본 수립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

[\(해럴드경제 2025.11.12\)](#)

2. 온실가스 감축목표 53~61%로...전력 69%·산업 24% 감축

-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를 53~61%로 의결했으며, 전력·산업·건물·수송 등 부문별 감축 수준을 각각 68.8~75.3%, 24.3~41%, 53.6~56.2%, 60.2~62.8%로 제시했음
-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약 3억~3억6000만 톤의 탄소 감축이 목표라며, 재생에너지를 2030년 100GW, 2035년 130~150GW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함
- 정부는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산업·건물·수송 부문의 투자 확대를 병행해 전체 감축 흐름을 강화한다는 계획임

[\(노컷뉴스 2025.11.10\)](#)

3. 이억원 "첨단기금 내달 출범, AI·반도체 기업에 첫 투자할 것"

-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첨단산업전략기금을 공식 출범시키고 첫 투자 대상으로 AI와 반도체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
- 정부는 첨단산업전략기금과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AI, 반도체, 바이오, 백신, 로봇, 수소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미래차, 방산 등 전략 산업에 폭넓게 투자할 방침임
- 이 위원장은 출범 즉시 프로젝트 추진과 거버넌스 구축을 병행해 실질적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함

[\(머니투데이 2025.11.12\)](#)

글로벌 기업

1. GM, 공급망 '탈중국' 본격화...공급업체에 대체 조달처 확보 지시

- 제너럴모터스(GM)는 수천 개 협력업체에 중국산 부품·원자재를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대체 조달처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, 일부 업체에는 2027년까지 중국 의존을 완전히 종료하라는 구체적 시한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
-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미·중 지정학적 갈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하며, GM이 중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전략적 전환에 들어섰다고 보도함

[\(아주경제 2025.11.12\)](#)

2. 인도 아다니 그룹, 에너지 저장 시장 진출...세계 최대 규모 BESS 프로젝트 추진

- 인도 아다니 그룹은 1126MW/3530MWh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(BESS)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에너지 저장 시장에 본격 진출했고, 이번 사업이 인도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단일 위치 기준 최대급 BESS 설치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
- 700개 이상 BESS 컨테이너가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2026년 3월까지 시운전될 예정이며, 아다니 그룹은 이를 통해 인도의 에너지 안보 강화, 안정적 전력 공급, 저탄소 전환 기반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움

[\(투데이에너지 2025.11.12\)](#)

3. "핵심산업 화학·통신, 다 뺏길 판"...중국 쫓아내는 유럽

- 영국 석유화학 기업 이네오스는 중국 기업이 일부 화학제품을 유럽에 정상가보다 낮게 공급해 피해를 입었다며 EU에 반덤핑 소송 10건을 제기했고, 해외 저가 수입품이 유럽 화학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함
- 이네오스는 아시아·중동·미국에서 유입되는 저가 화학제품이 유럽 산업을 잠식하고 있으며, 에너지 가격과 탄소 비용이 가장 높은 유럽 생산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EU 차원의 엄정 대응을 요구함

[\(한국경제 2025.11.11\)](#)

4. 오픈AI, 美 정부에 "AI 인프라 국가 전략산업 격상 요구...연 100GW 전력 확보하라"

- 오픈AI는 백악관에 CHIPS법 세제 혜택을 반도체 공장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, AI 서버 제조시설, 전력망 인프라까지 확대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며 AI 산업을 미국의 차세대 제조업이자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함
- 오픈AI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(OSTP)에 제출한 문건에서 현재 반도체 팹에만 적용되는 35% 세액공제를 AI 인프라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으며,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연 100GW 규모의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함

[\(디지털데일리 2025.11.8\)](#)

국내 기업

1. 삼성E&A, 美 루이지애나 지속가능항공유 플랜트 FEED 계약자 선정

- 삼성E&A는 미국 SAF 생산업체 DG퓨얼즈가 루이지애나주 세인트 제임스 패리시에 건설하는 첫 지속가능항공유(SAF) 생산시설의 기본설계(FEED) 수행사로 선정됐으며, 이후 진행될 EPC 본사업까지 연계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임

- 이번 사업은 연간 최대 2억 갤런 규모의 SAF를 생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, 삼성E&A는 올해 안으로 FEED를 시작할 예정이며 DG퓨얼즈와의 계약을 통해 미국 저탄소 항공연료 시장에서 EPC 역량 확대 기반을 확보하게 됨

[\(더구루 2025.11.12\)](#)

2. 리튬 원료 선점 나선 포스코, 1.1조 투자로 공급망 다변화

- 포스코홀딩스는 글로벌 리튬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·아르헨티나 리튬 자원에 총 1조1000억원을 투자하며, 특히 호주 미네랄 리소스가 신설하는 중간 지주회사 지분 30%를 약 7억65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함

- 이번 투자로 서호주 워지나·마운트마리온 광산에서 연간 27만 톤의 리튬 정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,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제련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차전지 소재 원료 경쟁력을 높일 계획임

[\(대한경제 2025.11.12\)](#)

3. “영하 60도에서 정상 작동”...LG에너지솔루션, 美 ‘사우스8’과 극저온용 배터리 개발 추진

-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사우스8테크놀로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NASA 프로젝트와 연계될 항공우주용 극저온 배터리 셀 개발에 나섰다. 사우스8이 개발한 ‘액화 기체 전해질’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 셀을 공동 제작할 계획임

- 이번 협력은 우주·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도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며, LG에너지솔루션은 액화 전해질·특수 외장재·주액 기술 등을 결합해 항공우주 시장 공략을 강화할 전망이다

[\(동아일보 2025.11.12\)](#)

4. 한전기술, 베트남서 해상풍력·그린수소 사업 공동 개발 추진

- 한국전력기술은 베트남 재생에너지 개발사 Minh Thach Group과 해상풍력·그린수소 분야의 공동 사업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, 이를 통해 베트남 연안 지역 신규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프로젝트 발굴 및 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

- Minh Thach Group은 베트남 내 재생에너지 투자·건설·운영 경험을 보유한 기업으로, 한전기술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동남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해상풍력·수소 분야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음

[\(데일리안 2025.11.11\)](#)

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11.7(금) ~ 2025.11.13(목)

제공일시 2025 11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

넷제로 목표 다시 확대...글로벌 대기업 41%가 '전 가치사슬 감축' 재가동

- 글로벌 컨설팅기업 액센츄어의 '데스티네이션 넷제로 2025'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000대 기업의 41%가 스코프1·2·3을 모두 포함한 전 가치사슬(Net-zero across full value chain) 감축 목표를 보유해 지난해의 정체 흐름에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됨

- 유럽은 65%로 가장 높은 목표 설정 비율을 보였고 아시아-태평양은 35%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북미는 2년 연속 후퇴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29%로 반등해 주요 지역 전반에서 목표 수립이 확산되는 추세가 나타남

- 스코프1·2 기준으로는 전체 기업의 73%가 넷제로 목표를 보유하고 이 중 70%가 전환 계획까지 수립했으며 기업들이 도입한 평균 감축 레버가 전년 11.5개에서 13개로 증가해 전략적 실행 수준이 한 단계 확대됨

- 상위 감축 레버는 에너지 효율과 폐기물 저감이 각각 87%, 재생에너지 사용 81%, 건물 효율화 80%, 공급망 협력 79%로 나타났고 특히 임직원 인센티브를 감축성과와 직접 연계하는 기업 비중이 2023년 23%에서 2025년 57%로 급증해 조직 내부의 행동 변화가 본격화되는 특징이 확인됨

- 기업의 매출이 2016년 이후 연평균 7% 증가한 가운데 운영 배출량은 정체 수준을 유지해 성장과 탄소 감축이 병행 가능한 구조로 이동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의 75%가 배출 강도를 낮추고 절반 이상이 스코프1·2 절대 배출량까지 줄이는 성과를 기록함

- 반면 2050년까지 운영상 넷제로 달성이 가능한 궤도에 오른 기업은 전체의 16%에 불과하고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배출 비중도 4%에 그쳐 실질 감축의 상당 부분이 소수 선도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남

- 특히 에너지·자원·유틸리티 산업은 전체 배출의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배출 증가 기업이 다수 존재해 산업 부문의 감축 전환이 글로벌 넷제로 경로의 핵심 과제로 제시됨

- 향후 감축 전략으로 보고서는 데이터 통합, AI 기반 수요 예측, 산업 간 협업을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수소 클러스터 구축, 탄소저감 기술 협력 등 인프라 공유 기반의 산업 전환 모델이 필요하다고 분석함

- 기업의 24%가 이미 AI를 감축 목적에 활용해 에너지 수요 예측과 생산 공정 최적화 등에서 평균 13% 생산성 향상과 11%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AI 자체의 전력 소비 증가를 고려한 효율적 모델과 지속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'그린 컴퓨팅' 체계 정착이 요구됨

[\(임팩트온 2025.11.13\)](#)